



# 연평도 답사를 마치고

2020. 10. 24~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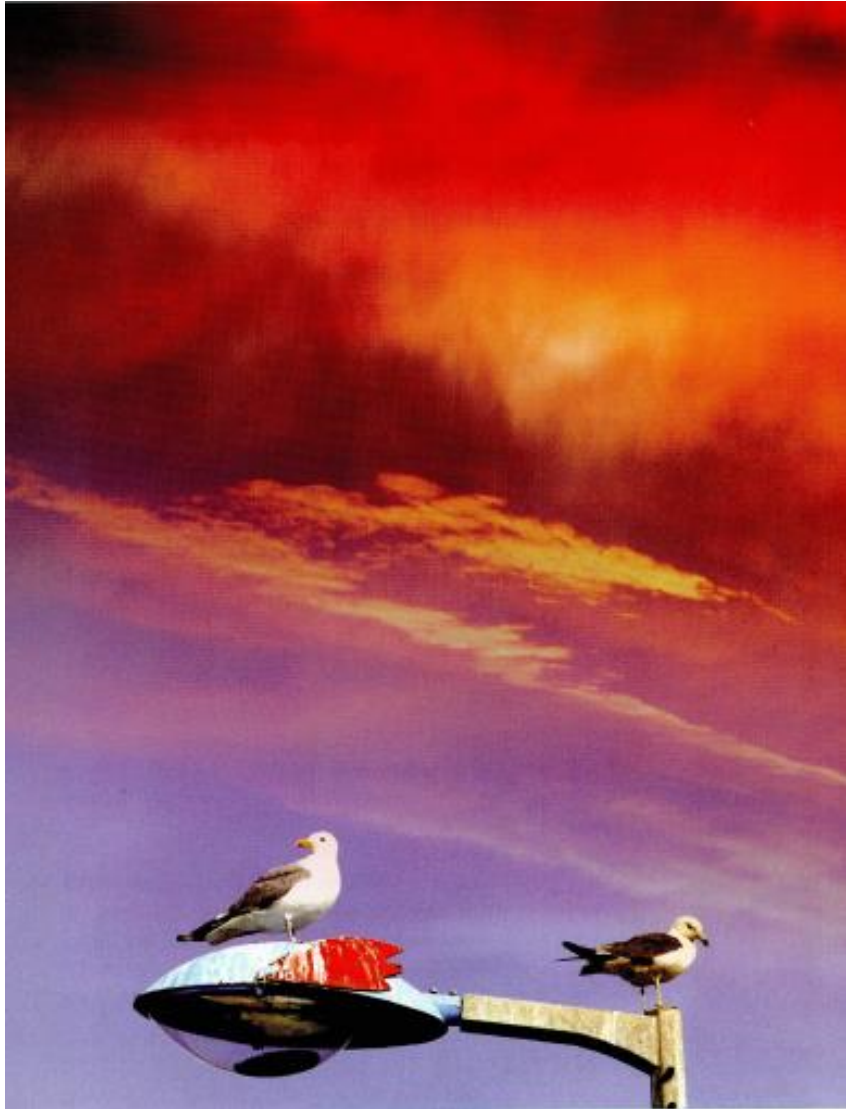
인천대학교 문화대학원

# 일정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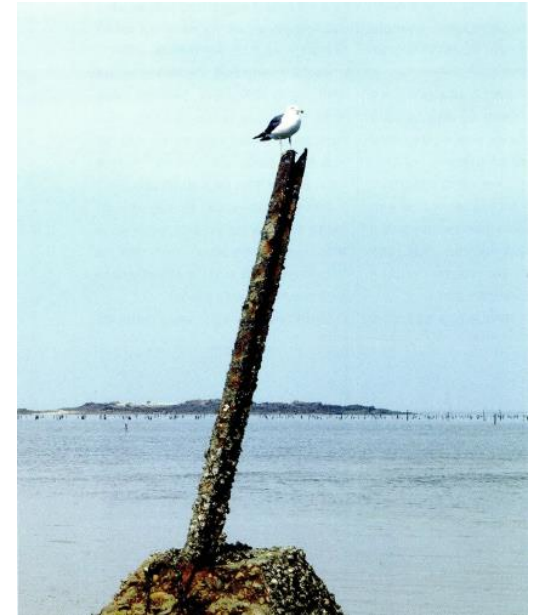
시간	활동내용	장소	비고
06:40	진입 <b>(진입지: 인천항 여객터미널)</b> 대연봉도발 8시 출발 (플라잉카펠리요)	중구 연안두루로 70	방임부 (방임부) 신부령 지참
10:30 - 11:00	숙소 이동 및 정리 (선착장 → 숙소) - 숙소: 돌리민박 (4인실 8)	연월면 연월중앙로 10 (010-4943-9902)	숙박비 (480,000원) 렌탈비 (250,000원)
11:00 - 12:00	중식 <b>【일몰식당】</b>	연월면 연월리 (032-832-3080)	칼국수 김치찌개
12:00 - 16:30	<b>【안보교육장】</b> <b>【추민사】</b> 	연월면 연월리 일원 안보교육장 (032-899-2552) 김영삼 해병사 (010-7179-8029) 조기역사관 (면사무소 899-3450 / 민청 899-2211)	안보교육장 (방임부) 추민사 (방임부)
	<b>【기형도문화관】</b> <b>【풍화공원】</b> 		연월면 연월리 일원
	<b>【풍화공원】</b> <b>【가래잡기해변】</b> 		연월면 연월리 일원
	<b>【조기역사관】</b> <b>【군터널관광시선】</b> 		조기역사관 후관
17:00 - 18:00	특별강의 <b>『연월도 어민들의 삶과 문화』</b>	돌리민박	박태원 어촌계장 (010-3577-9886)
18:00 - 20:00	식식 <b>【연월회관】</b>	연월면 연월리 (032-831-6588)	꽃게탕 꽃게찜 낙지볶음
20:00 - 22:00	소통의 시간 (외견 및 아이디어 공유)		
22:00 -	자유시간 및 취침		

시간	활동내용	장소	비고
07:00 - 09:00	기상 및 조식 <b>【돌리민박】</b>	연월면 연월중앙로 10 (010-2752-8901)	백반
09:00 - 11:30	<b>【망향전망대】</b> <b>【함상공원】</b> 	연월면 연월리 일원	
11:30 - 12:00	숙소 정리	돌리민박 (연월면 연월중앙로 10)	
12:00 - 14:00	중식 <b>【일몰식당】</b>	연월면 연월리 (032-832-3080)	조기매출량 실어코
14:00 - 14:15	이동	당성선착장	
15:45 - 18:00	출발 <b>(대연봉도 → 인천항 여객터미널)</b> 인천발 15:45 출발 (플라잉카펠리요)	인천항 여객터미널	방임부
18:00 -	해산		

14년 전 한 기자의 시선입니다. 이번 우리의 답사를 회상하며 다시 생각해 볼 만한 것이 있을까요?



- 여행을 아름답게 묘사할지언정, 섬을 미화하지는 말자. 특히 연평도처럼 치열하고 뽀뽀한 삶의 터전이 또 있겠는가... 한 주민은 배를 기다리던 기자에게 연평도 기사를 보고 왔다가 투덜대면서 돌아간 관광객들이 많았다고 전했다. 글밭이 사람 잡은 꼴이다.
- 두 차례의 교전에 대해서도, 교전 후 섬 분위기가 어떻게 변했는지에 대해서도 주민들은 ‘모른다’ 며 극도로 말을 아꼈다. 교전 이야기에 입을 다문 주민들의 표정에서는 분단 시대를 살아가는 이들의 신중함이 느껴진다. 연평도의 아름다움은 분명 가려져 있거나 혹은 부풀려져 있었다.



연평도에 대한 관점 (사례 1)

연평도 延坪島 섬여행의 환상을 깨라

이동권, <월간 말>, 20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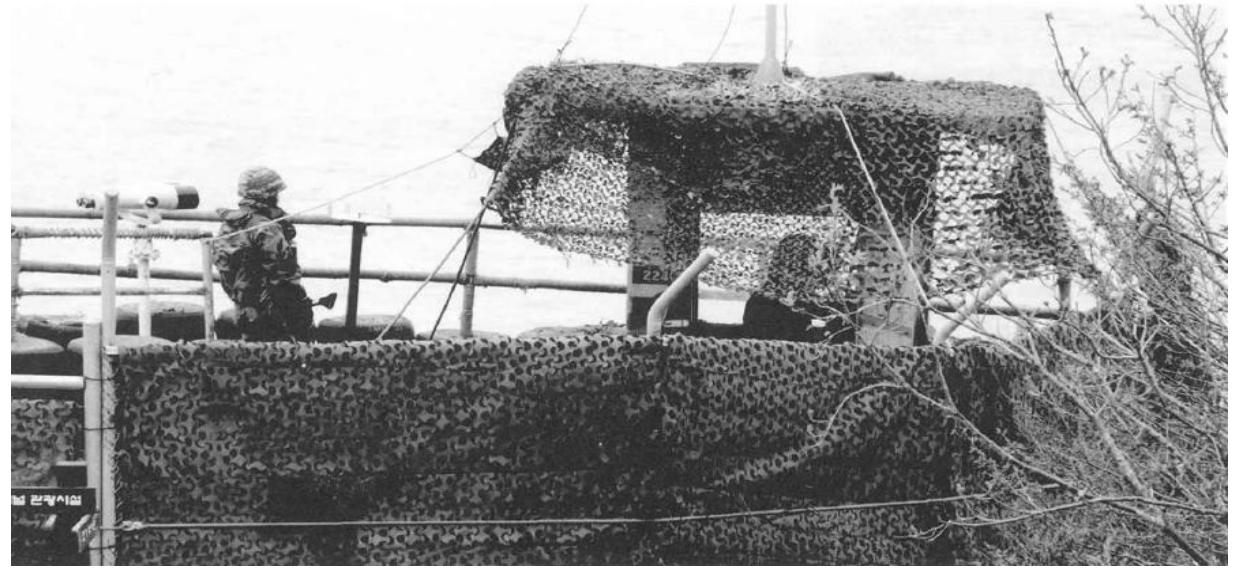
### 백로처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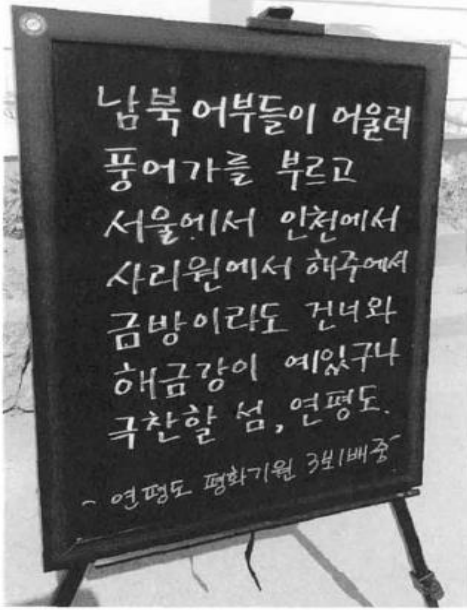
남북 어부들이 어울려  
종이가를 부르고  
서울에서 인천에서  
사리원에서 해주에서  
금방이라도 건너와  
해금강이 예있구나  
극찬할 섬.

해변에는 몽돌과 금모래가  
물결 아래는 전복과 해삼이 지천이고  
향 깊은 소나무엔  
사람보다 다정하게  
백로가 무수한 등지를 지어  
긴 목을 서로 부벼요.

바람따라 순하게 살아온  
백성들 혈뜰어  
남의 나라 잇속에  
방패삼는 허수아비들만 아니면  
나뭇가지 위에  
과하지 않은 농지들 들어  
더불어 사는 백로가 부러울 일  
뭘 있겠어요.

여기, 연평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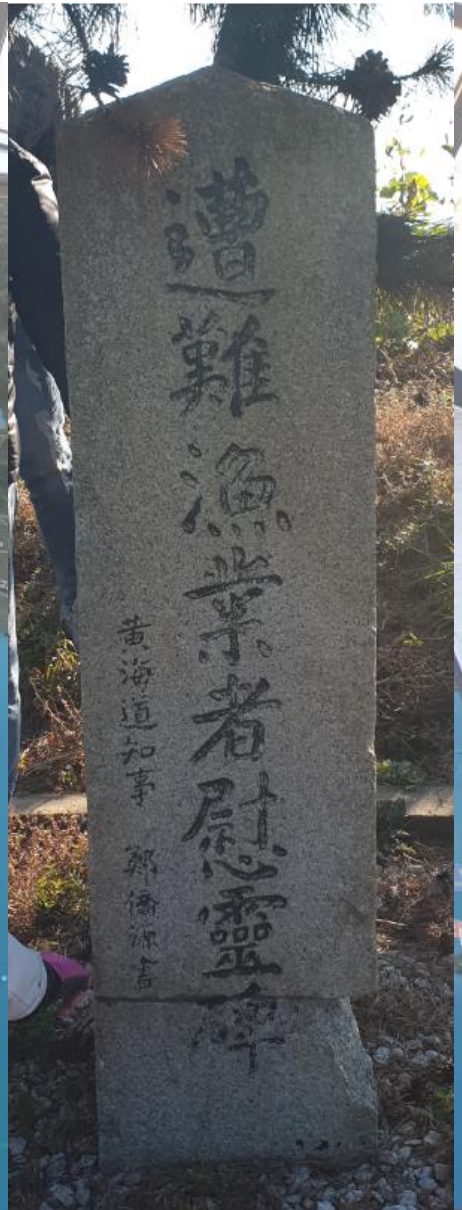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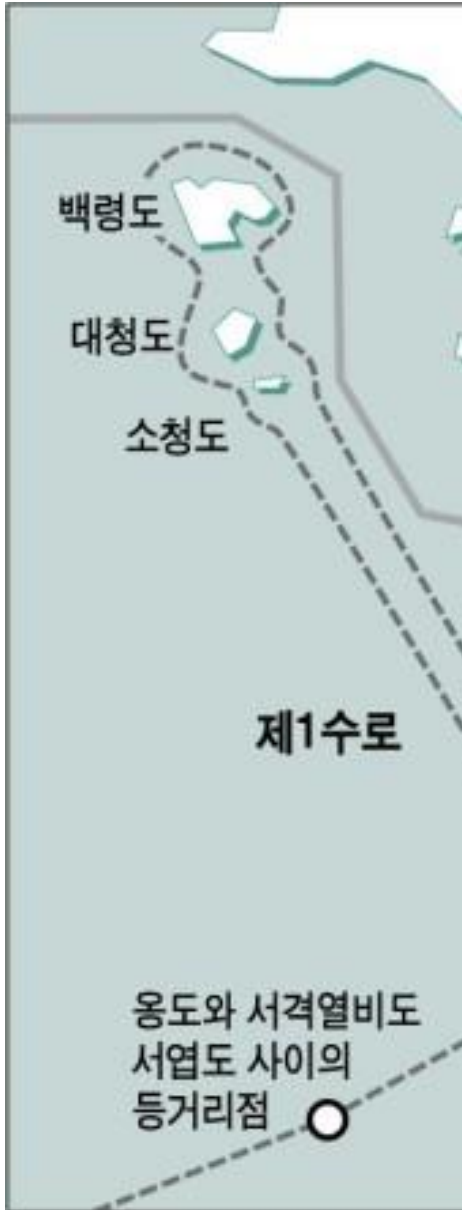


개성공단의 운명을 둘러싼 남과 북의 대치가 극한점을 향해 치닫고, 한반도에 전쟁 위기가 가중되던 지난 4월 27~28일, 남북 간에 실제 군사적 충돌이 벌어진 '대결의 땅' 연평도에서는 '황선과 함께 하는 1박2일 평화기행'이 열렸다. '연평도를 평화의 섬으로'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에서 참가자들은 주민들과 함께 '전쟁반대', '대북제재반대', '주민안전대책마련' 등을 촉구하고 한반도의 평화를 기원했다.



연평도의 역사지리적 쟁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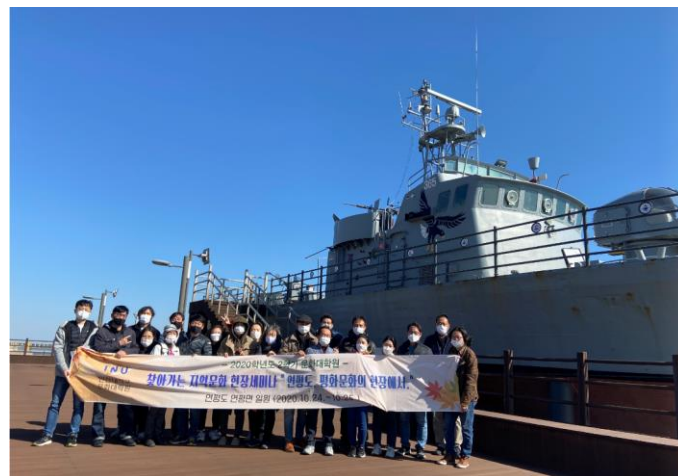
NLL (northern limit line), 북방한계선



연평도의 역사지리적 쟁점

NLL 그리고 중국어선









## 조기파시의 추억

A Sweet Memory of Jogi

조기파시가 번성했던 1960년대 연평도 이루었다. 사리 때에는 조류가 약한 조기파시 어선들(중선)이 교대로 입항하여 항내를 어선은 대부분이 무동력선으로 인천까지 구매를 위한 시장이 필요했다. 연평도기 조기파시에는 연평도에 서해어로지도 준비했고, 조기를 말려서 엮어놓은 두릅 여기에 전국각지에서 모여든 상인들과 북적거리던 옛 영화는 이제 추억이 되어

Every yellow croaker season du fishing vessels from all over K used Yeonpyeongdo as a haven and basic necessities as well a was formed on the island. The yellow croaker being dried in th including in all the bars and lo



1960년대 조기파시촌

조기파시가 번성했던 1960년대 연평도는 조기잡이 철(4~6월초) 이 되면 전국에서 모여든 3,000 여 척의 어선들로 황금의 조기파시촌을 형성하였다.



초등학교 교과서와 대중가요를 통해 전국으로 알려졌던 연평도 조기파시는 초등학교 교과서에도 소개되고 대중가요로도 불릴 정도로 널리 알려졌다. 특히, 사라호 태풍(1959)에 희생된 어부들의 아픔을 담았던 『눈물의 연평도』(최숙자, 1964)는 오늘날까지도 조기파시를 떠올리게 하는 대표적인 아이콘이다.



우물물이 마르도록 날랐던 아낙네들

배들이 항구에 정박하면 식수 공급을 위해 동네 여인들이 물동이를 이고 줄지어 섰다. 치마를 걷어올린 그 모습이 마치 해당화 꽃이 만개한 것처럼 아름다웠지만, 이로 말미암아 동네 우물이 말라 주민들이 불편함을 겪기도 했다.



빵 1개와 조기 1마리  
1950~1960년대 간식거리가 없던 시절, 아이들은 지천에 널려 있던 일개 조기 한 마리와 편빵 1개를 바꾸어 먹었다.



해안선 일대에 즐비했던 간동과 길가마  
조기를 절이는 간동은 시멘트를 이용해 데모난 수조처럼 만들었는데, 조기는 보통 2~3일 정도 간동에 절인 뒤 해안가에 넣어 말렸다. 나일론이 나오기 전까지 그물은 면사였다. 면사는 쉽게 부식되고 잘 끊어져 면사를 질기게 하려고 일종의 염색, 코팅인 '갈'을 입혔다. 해안가에 가마를 만들어 참나무 껍질을 볶으면 물엿처럼 고아지는데 그것을 굳힌 것이 '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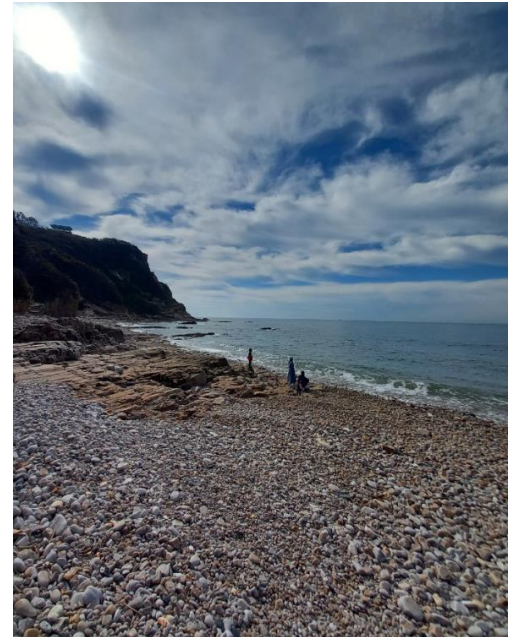


장사 씨름대회와 위문공연  
라디오가 귀하던 시절, 서해이로지도본부가 주최한 씨름대회가 어민축제의 목적으로 매년 개최되어 성황을 이루었다. 또 문화공보부 주최 연예인단의 위문공연도 자주 열려 어민들을 즐겁게 했다.





# 연평도의 자연자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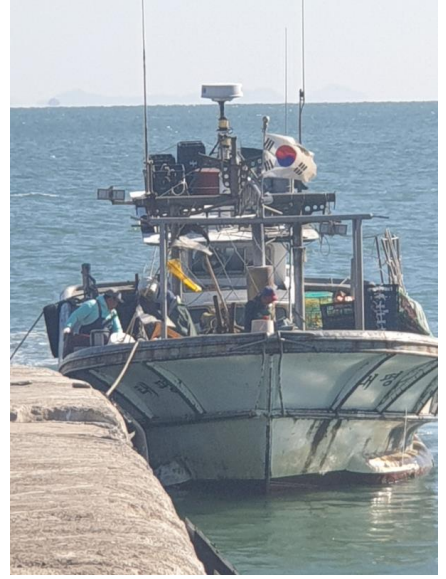
# 연평도의 자연자원



## 연평도의 자연자원



# 연평도의 생활문화





# 연평도 콘텐츠 ?

## 연평도 풍어제 (1997년) : 충민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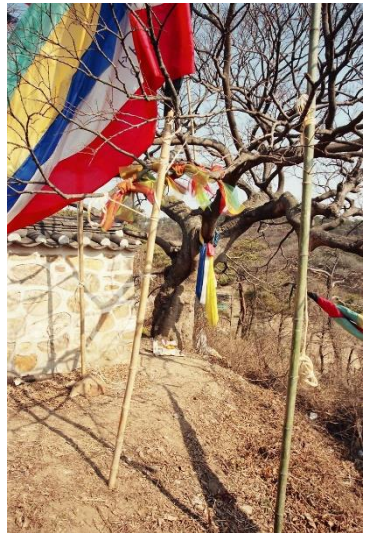
웅진 미디어자료관

웅진포토

홈 > 웅진포토 | 공유하기 | 프린트

포토 | 영상

전체 | 북도면 | 연평면 | 백령면 | 대청면 | 덕적면 | 자월면 | 영흥면



연평도 콘텐츠 ?

연평도 풍어제



경인일보

서해안 풍어제 '만신' 김금화

뉴스 > 인천 > 문화·생활

## 서해안 풍어제 '만신' 김금화 선생 별세

김민재 기자 발행일 2019-02-25 제1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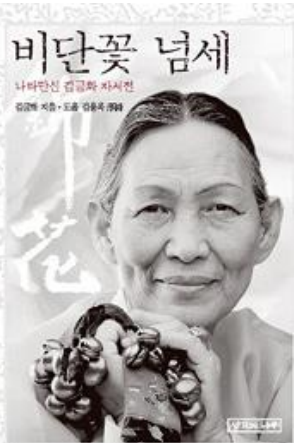


배연신·대동굿 보유 무형문화재  
평소 '풍어제 잘 보존하라' 당부

# 연평도 콘텐츠 ?



김금화 (황해 강신무)



만신 김금화 선생, 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모굿

세계일보 1:1 채팅  
2014.06.01. 13:36 조회 108

일시: 2014년 5월 31일 16:00  
장소: 연안부두 해양광장  
참가 만신: 김금화 선생외 다수



영화 만신 (2014)

연평도 콘텐츠 ?

안보 박물관 ?

### 고성 DMZ박물관



강원도 고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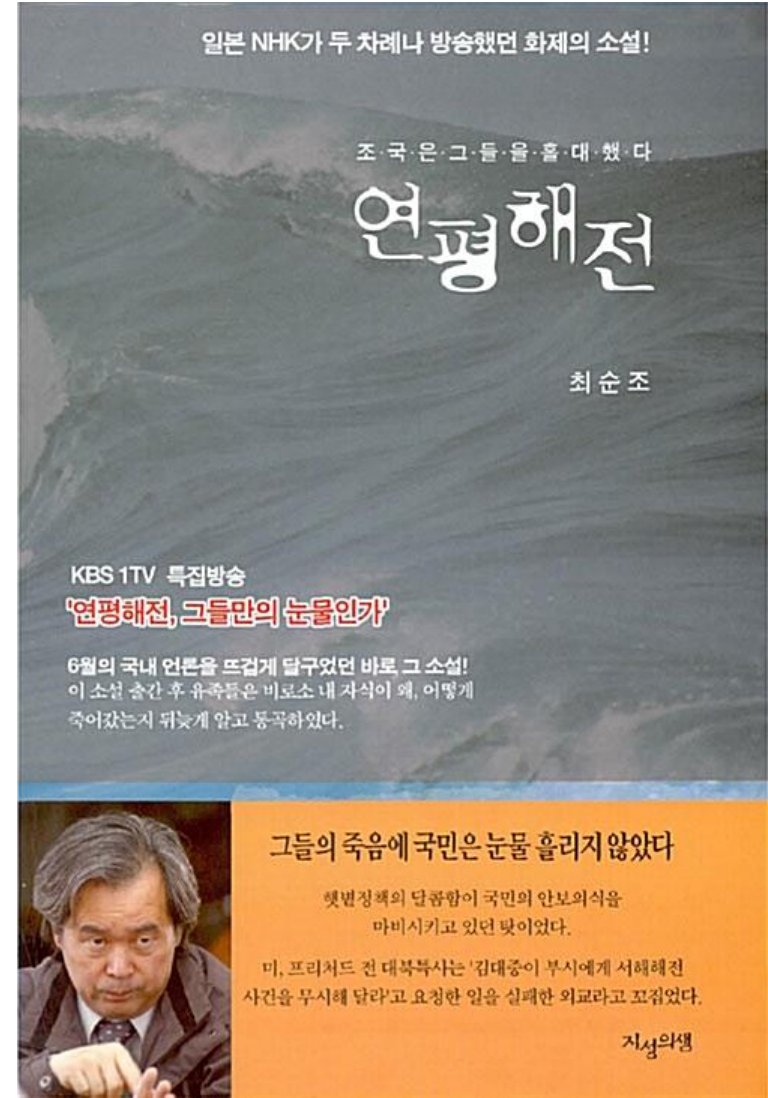


### 강릉통일공원



1996년 강릉 무장공비 침투사건이 계기.  
 1996년 당시에 강릉 해안에는 북한의 무장 잠수함이 침투. 때문에 강릉에서는 한바탕 소란이 일었고, 시에서는 그 침투를 계기로 안보의식을 고취할 필요성을 느낌.  
 그렇게 당시 문제가 된 잠수함을 비롯한 중요한 군사 시설을 전시하고, 공원까지 조성.

# 연평도 콘텐츠 ?



## 연평도 콘텐츠 ?

## 임경업 장군



송파구는 가락동 175-14 일대 상점가를 임경업 장군의 고사를 딴 '장군거리' 로 명명하고, 거리 입구에 상징조형물을 설치했다.



충북 충주시 임경업 장군 묘



충주 임충민공 충렬사



서산시 대산면 황금산사(임경업 장군당) 기도터



사간영보 보기